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일본/도쿄지사)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2021.5월]

1. 프로틴 제품의 통관시 주의사항

- 프로틴 파우더 제품의 세균수 초과로 수입철회 사례 발생
 - 최근 대일수출 한국산 프로틴 파우더 제품에서 세균수 초과로 인한 수입철회 사례가 발생함
 - 위반품목 : 단백질 파우더 보충제
 - 주원료 : WPC(유청 단백질 농축물)
- 일본 수입 신고시, 프로틴 파우더의 식품분류 품목을 단백질 고형분 함유식품이 아닌 분말청량음료로 규격기준을 적용한 것이 원인으로, 분말청량 음료수의 엄격한 세균수 기준 3,000/g당을 초과함
 - 수입자측에 의하면 해당 제품은 수입신고 철회서를 제출함으로서 위반으로 처리되지는 않으나, 규격기준 불합격으로 한국으로 전량 반송 처리할 예정임
- 향후, 한국산 프로틴 파우더의 일본 수입시, 식품분류를 분말청량음료가 아닌 단백질 함유식품으로 통관사와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음.
 - 단백질 농축 유청 파우더의 성분규격(예)
 - 유고형분 95.0% 이상
 - 유단백량(건조상태) 15.0%이상 80.0%이하
 - 수분 5.0% 이하
 - 세균수(표준 평판 배양법 g당) 50,000이하, 대장균군 음성

2. 시사점

- 처음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본 식품규격기준을 충분히 파악하여 첨가물 등의 사용상황에 근거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함 → aT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기관 자문을 권장함

1. 통관동향 등 이슈

- 최근 한국산 신선청고추 등에서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연속 발생하고 있어 대일 수출시 사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일본의 기준치와 비교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후 수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금년 6월 현재, 한국산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위반상황을 보면 깻잎 1건, 홍고추 2건, 청고추 6건, 참외 3건의 계 12건의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발생됨

2. 변동사항

- 해당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매회 수입시 마다 명령검사(전수검사) 또는 성분에 따라 모니터링 검사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각 품목에 대해서 잔류농약 안전성 확인후 수출이 필요함

3. 기타 주의사항 등

- 한국산 고춧가루에 대해서도 홍고추 간이 가공품에 해당되어 잔류농약 모니터링 검사 강화(전체 수입건수의 30%) 조치 상태로 주의 필요함

위반공표일 (통보일)	품명	수량 (kg)	농 약 검 출 (ppm)		일본기준	한국기준
			성분명	검출치		
2021.01.15.	들깻잎	100	Indoxacarb	0.02	0.01	20.0
2021.01.19.	풋고추	520	Propiconazole	0.02	0.01	1.0
2021.01.22.	풋고추	790	Hexaconazole	0.07	0.01	0.3
2021.03.17.	풋고추	3,000	Tricyclazole	0.06	0.01	0.01
2021.03.17.	홍고추	100	Tetraconazole	0.4	0.3	1.0
2021.04.08.	홍고추	90	Hexaconazole	0.20	0.01	0.3
2021.04.13.	참외	510	Chlorfenapyr	0.02	0.01	0.5
2021.05.20.	풋고추	2,700	Hexaconazole	0.03	0.01	0.3
2021.05.24.	풋고추	1,500	Tebufenpyrad	0.04	0.01	0.5
2021.06.21. (2021.06.16.)	참외	450	Procymidone	0.03	0.01	0.01
2021.06.21. (2021.06.18.)	참외	1,846	Chlorfenapyr	0.02	0.01	0.5
2021.06.24. (2021.06.22.)	고춧가루	45	Propiconazole	0.06	0.01	1.0
계	12회 위반	(들깻잎1, 풋고추5, 홍고추2, 참외3, 고춧가루 1회 위반)				

1. 통관거부사례(5월)

- 신선 청고추 잔류농약 위반 사례
 - 한국산 신선 청고추에서 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는 정도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기준치 위반 사례가 2건 발생함
 - 위반품목 : 청고추
 - ◆ 위반 성분 1 : 헥사코나졸(Hexaconazole) 0.03ppm(기준치 0.01ppm)
수출물량(2,700kg) / 위반일 2021.5.20.
 - ◆ 위반 성분 2 : 테브펜피라드(Tebufepyrad) 0.04ppm(기준치 0.01ppm)
수출물량(1,500kg) / 위반일 2021.5.24.
- 분말청료음료로 분류되는 팔 라테 제품에서 세균수 초과 및 대장균균양성으로 위반사례가 발생함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https://www.mhlw.go.jp/content/000786627.xls>

2. 시사점

- 신선농산물중 풋고추류는 주로 한인계 식당이나 한국계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제품으로 지금까지는 핸드캐리로 수출되어 왔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정상 무역품과 동일하게 잔류농약 검사를 받게 되면서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분말청량음료수의 세균수 기준은 3,000/g당으로 상당히 엄격한 기준치임으로 제조 또는 수출시 주의가 필요시 됨. 수출시 운송도중에 균이 증식되는 경우도 있음으로 운송관리 등 대책이 필요시됨

3.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1. 5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59건이 발생함(식기류 제외)
 - 5월중 한국산 식품위반사례는 분말청량음료에서 세균수 초과 및 대장균균양성 위반 1건, 신선 청고추에서 2건의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발생하였음

-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잔류농약 및 항생제 등 위반사례가 16건(27.1%),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부적합, 첨가물 위반이 9건(15.3%), 냉동식품 등의 세균수 초과 및 대장균군 검출 등으로 인한 위생위반이 17건(28.8%), 아플라톡신 검출위반 15건(25.4%) 등으로 나타남

4.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4월의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15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중 위반건수가 제일 높았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율중 25.4%를 차지함. 활바지락에서 잔류농약 위반 3건, 냉동브로콜리 등에서 잔류농약 3건 등 6건의 잔류농약 위반이 발생함.
- 땅콩류에서 아플라톡신 위반이 5건 발생하였으며, 건강식품, 중화과자류 등에서 2건의 첨가물 위반 사례가 발생함

○ 미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미국산은 신선아몬드, 땅콩류, 옥수수, 건조 무화과 등에서 모두 아플라톡신 위반되어 계 8건이 발생함

○ 태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어묵제품에서 대장균군 양성 위반 1건, 정미에서 곰팡이 발생 위생위반 1건, 건조망고에서 첨가물 위반 1건 계 3건의 위생위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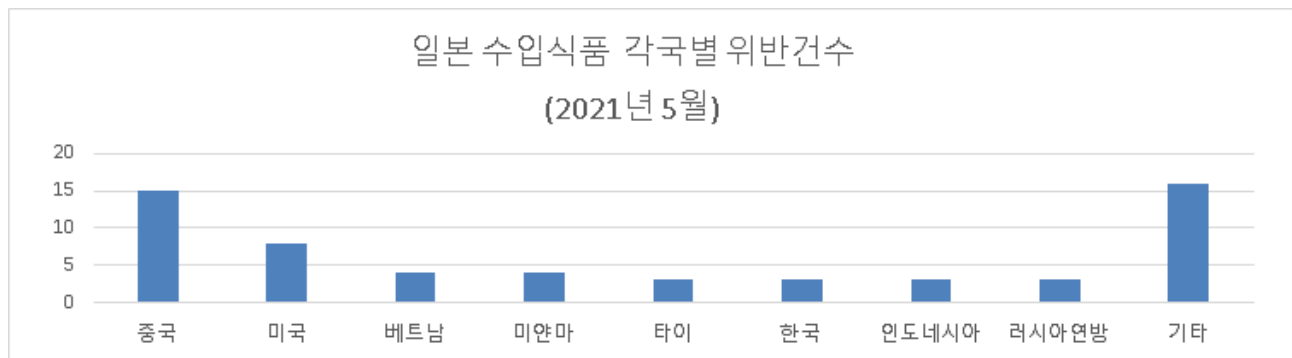
○ 베트남산 수입식품 위반사례

- 신선바나나 및 냉동 새우에서 잔류농약이 각각 위반되었으며, 신선코코넛에서 첨가물 위반, 볶은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위반이 각1건씩 계 4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 한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분말차인 팔 라테에서 세균수 초과 및 대장균군 양성위반이 1건 발생하였으며, 신선청고추에서 잔류농약 위반이 2건이 발생하여 계3건의 위반이 발생함
- 신선청고추의 경우 개인영업자들이 국내유통용 제품을 수집하여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표1>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



※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

<표2>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

국가명	위반건수	위반율	잔류농약 및 항균제등	아플라톡 신	위생	첨가물	기타
중국	15	25.4	6	5	1	2	1
미국	8	13.6		8			
베트남	4	6.8	2	1		1	
미얀마	4	6.8	4				
태국	3	5.1			2	1	
한국	3	5.1	2		1		
인도네시아	3	5.1			3		
러시아연방	3	5.1			3		
기타	16	27.1	2	1	7	5	1
합 계	59	100.0	16	15	17	9	2
비율(%)			27.1	25.4	28.8	15.3	3.4